공동체 소식

대림 제3주일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대림시기 안내

- 대림(待臨)이란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도착' '도래'를 나타내는 라틴말 Adventus를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시기는 전에 계셨고(첫 번째 오심) 지금도 계시고(우리 가운데 오심) 앞으로 오실(영광스러운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며 합당하게 준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기 그지없는 손님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대림시기를 지냅시다. 특별히 판공성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 신앙생활봉헌서 제출 안내

- 미사 봉헌때 함에 넣어 주십시오.

▣ 평협회장 선거 안내

- 선거일 : 12월 16일(대림제3주일)
- 대 상 : 본당 성인남녀 가톨릭신자
- 새평협은 대림 제3주일부터 시작되며
  1월 평협회의 때 신구 평협인수인계 마무리합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 교회법 제119조, 172조, 173조)

▣ 제19차 성령안에서 말씀과 함께 하는 영성 피정

- 일 시 : 12월 26일(수)~28일(금)
- 장 소 : 텍사스 휴스턴
- 한국어 진행 : 청년, 중장년
- 영어 진행 : 청소년및 청년
- 게시판 포스터 참조

▣ 전례봉사자 모집

- 대 상 : 독서, 해설, 복사, 성가대원
- 전례부에 문의.

*** 제의와 전례복 세탁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애찬 봉사자 모집

- 대 상 : 형제, 자매님
- 총구역장에게 문의

▣ 매일미사 정기구독 신청 안내(상시)

- 신청은 전례부에 문의(1년 $60)
- 평일 미사 때 영성체송 합니다.
- 미사 참례전 기도문과 독서/복음말씀 읽어 봅시다.

▣ 평일미사 안내

- 화,수,목요일 평일 미사 30분전 묵주기도 합니다.
- 묵주기도지향 : 냉담교우 회두와 본당공동체를 위해서.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92	511	154	91
차 주	91	217	161	90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고평원(프란시스코) 차민서(임마누엘)	김정원(안젤라) 김정빈(바오로)
차 주	문호진(안토니오) 차민서(임마누엘)	문예나(요안나) 김지안(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요셉)	김병철(베네딕토)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차 주	최은미(아녜스)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 애찬 봉사자

금 주	3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 주	4조: 김말자, 김화년, 안현숙

▣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홍순익 마르띠노, 김대연 요셉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 세가지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

"자선활동"

대림 제3주일 | "모든일이사랑으로이루어지게하십시오"-1코린 16,14- | 2018년 12월 16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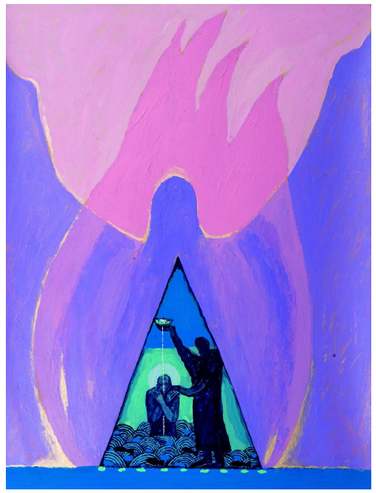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 주일입니다. 생명의 샘이시요 기쁨의 샘이신 하느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길을 거침없이 달리며 온 세상에 구세주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기로 다짐하며, 기꺼운 자선 행위로 이웃 사랑을 기쁘게 드러내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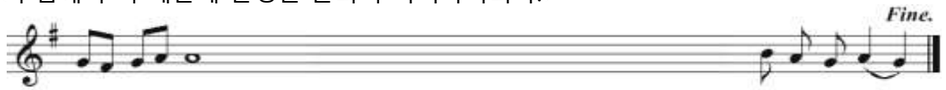
그림 묵상

성령과 불의 세례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음에 오실 분은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을 겸허하게 고백한 요한의 겸손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깃들 때 비로소 드러나는 자선의 행위를 이제 행할 때입니다.

정미연 소화데레사 | 화가

제 1 독 서 : 스바니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4-18ㄱ
<주님께서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화 답 송 :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4,4-7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3,10-18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의 말씀

주님은 우리의 기쁨

가톨릭청소년 성가집에는 '주는 우리의 기쁨'이란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린 아무것 아니리."라고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서 마음을 다해 찬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느님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창세 3,19 참조)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극진히 보살펴주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하느님을 등지고 제멋대로의 길을 가다가 불행의 골짜기에서 헤매기를 반복합니다. 하느님은 그런 못난 우리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고, 죄와 죽음의 수렁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시어 구원의 손길을 건네주십니다.

스바니야 예언자는 이런 대자대비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전쟁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신세지만, 주님이 백성 한가운데 계시면서 당신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기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제1독서) 사도 바오로도 필리피 신자들에게 힘찬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작은 무리에 지나지 않지만, 주님이 그들 가까이 오셨기에 기뻐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그분께 의탁하여 기도하고 간청하라는 것입니다.(제2독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절망과 낙담만 남아있는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의탁하면 기쁨과 생명,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세상만물을 지어내신 창조주요, 죄인을 거듭 용서해주시는 자비의 주님,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당신께 다가오는 이들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주시는 은총과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총과 자비로 변화되어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너그러움이란 가진 바를 기꺼이 나누고, 정해진 것 이상은 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것입니다.(복음)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자비에 회개의 삶으로 응답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쭉정이가 아닌 알곡을 거두기 원하십니다.

기꺼이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 가운데 머물고자 하시는 주님을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맞이합시다. 그러면 불행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역경 중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개의 삶을 살면서 이웃을 너그럽게 대합시다. 그들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입을 모아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이라고 힘차게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소서!"

손희송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길은 걸어가는 길이고
길은 이해하는 방법이고
길은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길은 그분이 걸어오시는 길이고
길은 그분에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길은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는 방법이고
길은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길은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시작이고
길은 그분을 알아차리는 은총의 시작입니다.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마르 1,2)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셨던 교수님

30년 전쯤, 당시 일반대학교에서는 신체 장애인의 입학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일반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꼭 도전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기 대학에 입학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던 날, 저는 교수님들 앞에 수화통역자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분들의 입 모양을 읽어보려 애썼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대답을 못 하자 이상히 여겼고 "혹시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어눌한 발음과 손짓으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임을 알려드리자, 그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일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 강의를 들을 수 있을지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후 게시판에 붙은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후기 대학에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그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면접시험을 치렀고,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로 전문대학에 입학원서를 냈습니다. 놀랍게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면접시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살펴보니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엿한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입학하던 날 학과장 교수님이 출석부를 보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학생들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기에 '박민서'라고 부르던 교수님의 입 모양을 알아보고는 대답 대신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없이 손을 든 제가 이상한지 말을 걸어왔고 제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합격시켜서는 안 될 학생이었는데 너무 늦었구나 하는 마음을 교수님의 표정으로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고민 끝에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없었기에 같이 공부하던 학생들이 쓴 노트를 보며 강의 내용을 옮겨 써야 했습니다. 우연히 그런 제 모습을 본 교수님은 마음이 아프셨는지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저를 위한 강의록을 직접 써 오셨고, 강의가 시작될 때마다 주시곤 했습니다. 교수님의 섬세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은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교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한 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사랑으로 저를 도와주시던 교수님이 그립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교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서 신부 |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 담당사제

교리상식

대세는 어떻게 주나요?

전쟁 때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 등 사제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에 주는 세례를 대세라고 합니다. 대세를 줄 때는 가능한 한 증인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례를 준 사람은 자신이 대세를 준 사실을 빨리 본당에 알립니다. 세례를 베푸는 이는 깨끗한 물을 세례자의 이마에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합니다. 비상시에는 신자 누구나 세례 때 받은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고, 세례 받는 이의 상태에 따라 '임종 대세'와 '조건 대세'가 있습니다.

글_「교회상식 속풀이」 | 바오로딸 발행